



골프장 許可, 京畿지역 80개 몰려

전국 197개 운영·건설·허가신청·그린벨트 훼손도

기존 골프장은 50개소

최근 2년동안 전국의 골프장허가가 부쩍 늘어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산림및 녹지들이 마구 파괴쳐지고 있다.

17일 체육부집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기존골프장은 50개, 건설중인 골프장은 1백21개, 허가가 났거나 신청중인 골프장은 26개로 모두 1백97개의 골프장이 영업중이거나 건설중이다.

이는 미국의 1만2천4백개소를 비롯, 영국의 2천1백57개 일본의 1천5백58개소의 골프장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京畿道에 몰려있어 국토의 효율적관리와 생태계파괴 농약공해예방 등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全國宅地 면적의 11%

京畿宅地面적의 72%

현재 영업중이거나 건설중인 1백71개의 골프장 면적은 모두 6천여만평이 넘으며 이는 전국택지면적의 11%, 京畿道택지면적의 72%에 이르러 「골프장왕국」이라는 비난도 받고있다.

정부는 당초 골프장면적을 18만평이상으로만 규정했다가 토지공개념도입 등에 따라 18홀코스를 기준, 32만6천평으로 상한면적을 규제했으나 국토의 효율적관리라는 측면에선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전국 1백71개 골프장중 절반에 가까운 80개가 京畿道에 편중돼있어 골프장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함께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뿌리는 농약이 식수원으로 흘러드는등 각종공해가 가중되고 있다.

楊州郡에 있는 로얄골프장의 경우 9만평의 그린벨트등 녹지가 형질변경허가라는 이름아래 훼손됐고 城南市 남성대부근의 미군골프장도 남한산성 아래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18홀 규모를 건설,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 山林파괴도

또 江原道 春城군 南면 白楊리에 골프장을 건설 중인(주) 옥성도 환경처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인근산림을 파괴쳐 지난 15일 관계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일부 골프장건설업체들은 수질보전지역에서 20km, 취수장에서 10km이내에는 골프장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적인 골프장건설로 京畿道 忠南北 江原 慶南 등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골프장건설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허가관청과 골프장업체간의 유착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골프장건설 급증추세는 6공화국 들어 더욱 뚜렷해져 87년 2건, 88년 6건이던 것이 89년에 65건, 올해는 48건으로 집계, 최근 2년간 무려 1백13건이 무더기로 허가됐다.

시도별로 영업중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수는 京畿道외에 慶北 江原 각13개, 慶南 11개, 忠北 10개, 全

南 全北 濟州 각 7개, 忠南 4개, 서울 釜山 각2개, 仁川 大邱 大田 각 1개 등이다. (11.17. 東亞일보)

닐캡탄 디코폴 캡타폴 메프 이피엔 파프 다수진등 8종의 고독성농약이 한종류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大規模생태계 파괴우려

골프장건설 “환경평가”안 지켜

(株)육성(대표 李성길)이 江原道 春城郡 南面 白楊里 산2 일대에 42만평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처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있어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原州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육성그랜드컨트리클럽」공사가 8월20일 착공돼 현재 기초토목공사만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산봉우리를 깎아낼때 절토부는 1대1, 성토부는 1대1.5의 경사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마구 파헤쳐 4개의 산봉우리가 거의 없어지는등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株)육성은 이밖에 공사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2차오염이 안되도록 적정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등 7개항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다. (11.16. 中央日報)

골프장 危害農藥사용 여전

上半期 46곳서 ha당 平均 3.6kg뿌려

전국 46개골프장이 사용이 금지된 캡타폴등 고독성농약을 여전히 살포하고 있으며 安養 水原 양지 가든 보문 국제 제주 중문CC등 22개 골프장의 잔디 및 토양에서는 발암위험성이 크고 잔류성이 길어 골퍼나 종사원들의 건강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많은 다코닐캡탄 디코폴등 3종의 고독성 살균 살충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있다.

11월20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국 46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모두 92종으로 ha당 평균 3.6kg을 뿌렸으며 이중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다코

22곳선 캡탄·다코닐등도 검출

水質오염·發癌性 치명적損傷

특히 가든 安養등 22개 골프장의 잔디및 토양에서는 다코닐 디코폴 캡탄등 고독성 농약이 최고 0.35PPM 까지 검출됐는데 이들 농약은 잔류기간이 긴데다 독성도 강해 토양 수질오염뿐 아니라 발암위험성으로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독성살균제인 캡탄은 발암위험성이 높아 핀란드 등 선진국에선 지난 72년부터 생산이 금지된 품목이며 다코닐 디코폴등 고독성 살균 살충제도 잔류기간이 길어 토양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각골프장의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된 고독성농약량을 보면 캡탄의 경우 국제CC에서 0.023PPM, 중문CC 0.0198PPM, 오라CC 0.0168PPM, 제주CC 0.0085PPM등 모두 8개골프장에서 검출되었으며 다코닐은 가든 CC에서 0.35PPM, 도고CC 0.07PPM, 대구CC 0.065PPM등 5개골프장에서, 디코폴은 보문CC 0.149PPM, 안양CC 0.051PPM, 태광CC 0.015PPM등 14개골프장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이들 골프장중 유성·도고CC는 다코닐 캡탄 디코폴등 3종의 유해고독성 농약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마사회는 디코폴 캡탄등 2종이, 나머지 19개골프장은 1개 농약씩만 검출되었다.

한편 환경처는 이들 골프장들이 유해한 고독성농약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것을 막기위해 농림수산부 체육부등과 협의, ▲골프장농약사용에 대한 지도강화 ▲저독성 골프장용농약개발 ▲병충해에 강한 잔디품종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90여종의 골프장사용 농약중 잔디와 수목용은 지오판수화제 티디폰수화제등 5종의 살균제와 펜디수화제 파미드수화제등 7종의 제초제로 모두 12종에 불과하다. (11.21. 韓國經濟)